

0세~1세 유아 '부모급여' 지급



▲ 한국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0-1세 유아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0세(0-11개월)와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리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유아의 부모에게는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32만3,000명이다. 0세가 23만8,000명, 1세는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양육을 위한 관련 시설과 시스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

군사력, 경제력, 리더십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이하 US뉴스)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8위에서 이번에 2단계 상승했고, 반면 2021년 6위였던 일본은 이번 조사에서는 8위로 떨어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리를 맞바꾼 결과가 됐다.

US뉴스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현재는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의 국민총저축(GNS)과 높은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으며 유엔, G20, 동남아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



▲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다. 사진=shutterstock

의 회원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잣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US뉴스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VMLY&R의 계열사 BAV 그룹,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과 협력해 순위를 도출하고 있는데 설문 조사 대상은 1만7천명에 달한다. 응답자들은 군사동맹·국제동맹·정치적 영향력·경제적 영향력·리더십 등 5가지 특성을 가진 85개국을 연관시키도록 요청받았다.

조사 결과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4, 5위는 독일과 영국이 차지했다.

직장인 60% "기회 오면 언제든 이직할 것"

한국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상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생직장'의 시대가 끝나고 직장인들도 늘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움직인다는 평가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취업·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이 직장인 1,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당장 이직 계획이 없어도 이력서를 상시 공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력서를 항상 공개하는 이유로는 '당장은 아니어도 좋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 이직하기 위해'가 86.4%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이직 사유는 ●연봉 불만족(52.4%) ●나쁜 근무



▲ 한국 직장인의 60%는 상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43.2%) ●회사 발전 가능성 부족(41.1%)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하게 이직하는 연차는 5-10년 차로 나타났다. 사람인 인재풀 조사 결과, 전체 이직 제안의 34%가 5-10년 차에 집중됐다. 과장급 연차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고 일정 이상 적응력과 관리능력을 갖췄기에 이직 시장에서도 활발히 제안이 오간다는 설명이다.

이직제안을 가장 많이 받는 직무는 '회계·세무·재무' (12%), '마케팅·홍보·조사' (11.2%), '기획·전략' (9.8%), '영업·판매·무역' (9.5%), 'IT개발·데이터' (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올해 취업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전)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Dr. 백샤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